

# Craig Keener 박사, Matthew, 강의 16, 마태복음 23-24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6회, 마태복음 23-24장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지도자들이 실제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실 것입니다. 그는 종교 기관에 임박한 심판에 대해 말할 것이며, 결국에는 성전과 성전 설립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초림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성전은 모두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성전도 멸망될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상으로 나아가 재림에 관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또한 우리가 그 첫 번째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시대의 종교 기관에 적용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들을 돌보지 않는 목회자들(24장 45~51절)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단지 역사적인 관심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 바리새인들이 망쳤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이 행동한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우리가 해야 할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여주기 위해 종교에 도전하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지도자의 적대감과 관련이 있다.

그 중 대부분은 마가복음 12장에서 나왔고 이 중 일부는 마가복음 12장에도 있습니다. 후기 랍비들과 일부는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며, 후기 랍비들은

위선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위선이 있음을 지적하고 바리새인의 위선을 정죄했습니다.

사실, 랍비들은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를 위해 보존된 그들의 글에서 여러 번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곱 종류의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선한 종류의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류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바리새인들은 다른 동기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루증이나 상한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한 종류의 바리새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눈을 감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물에 부딪혀 상함을 입었습니다. 혹시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까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통 내에서는 바리새인의 위선과 다른 사람들의 위선을 인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가 간음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 그의 교인이 “어디 다녀오셨나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은 현실 세계와 접촉이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정상이라면 신은 금지합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선을 정죄하십니다.

유대인 내부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에스라 4서, 바룩 2서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가 매우 옳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23장이 반유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유대적인 내용을 읽고 싶다면 Josephus는 Apion에 대한 그의 작업에서 Apion의 반유대인 증상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아피온은 모세에 대해 온갖 나쁜 말을 합니다. 출애굽의 이유는 유대인들이 나병에 걸리고 애굽이 그들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부르며, 성전에서 당나귀 머리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반유대인 중상모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대조적으로, 다른 유대인 집단을 비난하는 유대인 집단이 있는 곳에서 유대인 내부 분쟁이 있었습니다.

내 말은, 당신은 선지자들을 보고, 당신은 아모스를 보고, 당신은 호세아를 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세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호세아, 아모스, 예레미야와 하나님은 이 책들에서 자기 백성에게 매우 엄격하고, 매우 가혹하고,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유대인 집단을 비난하는 일부 유대인 집단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수사를 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일한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은 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한 곳에서는 쿨란 찬송가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나머지 이스라엘을 벨리알의 회중, 사탄의 회중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것은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글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예수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그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으며,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분도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초림의 지도자들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인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 적용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였는가? 글썄, 그 용어가 어디서 유래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용어는 분리주의자를 의미할 것이다. 그들은 먼저 음식의 십일조를 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토라에 대한 정확한 해석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이 살로메 알렉산드라 치하에서 정치적 권력을 장악했던 때는 몇 세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헤롯 당원들, 특히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 제사장 귀족의 대부분은 사두개파에 속합니다.

사두개인들은 헤롯 대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시기에 산헤드린의 대부분은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가말리엘 1세와 같이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그곳에서 소수였을 것입니다.

사실은 가말리엘 1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있었는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물론 때때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 권력을 잡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귀족 중에는 그들 중 일부가 있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 전체를 합치면 대략 6,000명 정도, 즉 바리새인이 6,000명 정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체 인구의 1%도 아니고 아마도 1%에 가깝습니다. 요세푸스는 우리에게 6,000이라는 숫자를 제시한 사람이고 그는 결코 숫자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초기 유대교의 한 측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규범적인 유대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이것이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개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반사두개인이었지만 사두개인들과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에서 때때로, 때때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두개인들과 협력하는 것을 봅니다. 사두개인들은 백성들과의 협력이 필요했고,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일을 해야 할 때 사두개인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다(23:1). 그러면 지도자들이 보복할 것이다.

이것은 수사학적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명예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성전의 탁자를 뒤집는 것은 제사장 엘리트의 명예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모든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사장 엘리트들은 하급 제사장들에게 속한 십일조를 빼앗아 다음 세대의 제사장 직분에서 상당수를 몰아냈습니다. 모두가 성직자 엘리트가 부패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를 작성한 사람들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요세푸스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들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패한 지도자들은 부패하지 않았더라도 명예의 문제였습니다. 내 말은, 성전의 상들이 뒤집히고 성전이 혼란에 빠지면서 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비판하신 방식으로 인해 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내 말은, 그들은 사두개인만큼 높은 지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또한 그것을 수사학적 도전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2절, 3절).

원칙적으로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그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는 하되 행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이에 적힌 그들의 윤리는 그들이 항상 실천했던 방식보다 더 나았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의 윤리에서는 다른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도 관대하거나 엄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자기 손가락 하나도 들 수 없는 짐을 남에게 지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회당, 성전의 이 특별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이 여러 회당에 이 특별한 명예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모세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누군가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종종 누군가의 후계자가 된다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모세의 후계자라 주장하는 자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법의 세심한 해석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모세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구두로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윤리적 원칙 중 상당수는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그런 것들에 따라 살 수는 있지만 그들의 모범을 따라 살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글쎄요, 그리스 연설가들이 수사학을 분류했을 때, 한 종류의 연설은 전염병적인 수사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칭찬과 비난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비난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자기 칭찬이 공격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명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최고라고 말하지 않고도 자신을 멋져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은 그들을 특징짓는 특별한 종류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도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매우 눈에 띄는 성문을 만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물함, 그것은 그리스어 용어입니다. 채우는 것은 히브리어 용어이다. 신명기 6장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마와 손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비유적인 의미였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 훨씬 이전에 많은 유대인들은 머리와 손에 엮을 상자에 몇 가지 계명을 넣어 문자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문설주에 메주자를 놓곤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토라를 지키도록 상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행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겔옷의 네 모퉁이에 있는 술을 눈에 띄게 만드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그 술은 치치짓, 즉 술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계명을 얼마나 종교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존경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6절). 고대에는 앉는 것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장로들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회당에는 높은 단, 베마가 있고 지위가 있는 더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앉았습니다. 바닥에 앉는 회당에는 의자가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바닥에 앉는 회당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바닥에 없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스 사회에서는 연회에서 사람들이 종종 순위에 따라 앉았습니다.

사해사본에서는 반드시 계급별로 자리를 잡았고, 그 계급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순위에 따른 좌석 배정은 아주 익숙하고 흔한 일이었습니다. 글쎄, 스스로 가장 좋은 자리를 찾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때때로 사역자들을 강단에 세우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글쎄요, 장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더 쉽다면 그것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때때로 당신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교회 환경에 있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쭐대고 싶어서 그런 짓을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7절부터 11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명예를 구하지 말라고 지적하십니다. 현자들은 겸손을 강조하면서도 특별한 영예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토라의 현자로서 존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인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우월한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랍비는 공식 명칭이 되기 전에 문자 그대로 나의 스승을 의미했고, 랍비 등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는 나의 스승이라는 뜻으로, 스승에게 바치는 매우 존경하는 칭호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랍비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한 주인이 있는데,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희 아버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명예 칭호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랍비의 제자들은 그들의 랍비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 전통에서는 누군가를 교수나 목사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직업에 대한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문제는 이것이 그들이 존경받는 칭호이며, 그들의 제자들이 자기 부모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존경심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선생님이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니라.

여러분은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왕국의 서기관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교사를 영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환영합니다. 성경은 존경할 자와 정부 관료 등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중을 인도하는 장로들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지도자인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종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중하도록 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사였을 때, 제가 아주 어렸던 교회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어려서 저를 크레이그(Craig)라고 불렀습니다. 일부 서클에서는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는 다른 서클에 있었고 사람들이 나를 크레이그라고 불러주길 원했는데 그들은 '아 안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말하더군요. 키너 목사. 나는 '제발 나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존경받을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국 나는 포기했다.

나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나의 학생들은 초기에 항상 나를 Dr. Keener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틀을 추구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명예를 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면,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

예수님께서 12절에서 분명히 밝히신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언어, 이사야서 2절 11절과 12절, 5절, 15절과 16절, 에스겔 21:26 등을 반영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고 더 높은 자리로 부름을 받는 연회에서도 그것은 잠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왕국에서 리더십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면 그것은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면 24, 45, 51에서 그것을 매우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인 필요를 위해서든 더 자주 금전적인 이유로든 양을

착취합니다. 때때로 목사들은 심지어 회중 성원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전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누군가가 명예로운 위치에 있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이나 지위, 그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이 사람이 애정에 보답하기 시작하는 역전이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적절한 존중과 부적절한 애정, 적절한 애정과 부적절한 애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죄에 빠졌고, 우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학대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료 종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23절 13절부터 32절까지 인간 종교에 대한 화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윤리는 예수님의 윤리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원칙적으로 여러분의 윤리와는 다릅니다. 단지 '아,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팔복과 일치하는 일곱 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일부 서기관들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의 첫 번째 설교에 나오는 여덟 가지 팔복에 상응하는 여덟 가지 화가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덟 번째는 텍스트 변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단지 생략되었다고 생각한 일부 후기 서기관들에 의해 마가복음에서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13절부터 15절까지 유익보다 해를 더 많이 끼칩니다. 예수께서는 개종자를 구하는 일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이는 널리 입증되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에 대해 불평합니다. 일부 로마인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개종자를 찾고 있었지만 그것은 개인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직적인 선교운동과 같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는 조직적인 선교 운동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개종자를 양성하고 이방인 개종자를 얻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개종자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과 같은 개종자를 만들려고 노력했으며 그들의 가치관이 항상 올바른 가치는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올바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옳지 않은 것을 위해 개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두 배의 지옥 자식은 너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너보다 두 배나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좋은 셈어식 표현이다. 16절부터 22절까지 거룩함에 대한 표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불일치는 더욱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33절 이하에서 맹세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나게 합니다.

23, 16~22조에서는 실수로 맹세를 어길 경우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 대리명을 사용한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맹세 문구가 실제로 구속력이 있는지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행위를 무의미한 변론, 무의미한 끌어당김, 율법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거부하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맹세든지 당신의 명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어떤 종류의 맹세든지 궁극적으로 신을 불려들이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면 죄가 있느니라.

그것이 그들이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으로 맹세하든 그것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서 이야기한 금덩이를 포함하여 성전에 있는 금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세부적인 것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큰 그림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때로는 신학교에서도 신학교 학생들이 나무 때문에 숲을 그리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아시다시피, 그리스어 주석을 배우면서 여러분은 '좋아, 이 동사는 이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이 명사의 형태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글썄, 그것은 모두 성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만 갖고 있을 뿐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보다 토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문법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페이지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즐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나 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아는 것 이상을 의미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의 정신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서는 그들이 나무만 보고 숲을 놓쳤는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일조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십일조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들은 말라기 3장 10절을 인용하여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서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십일조를 교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요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창고는 곡식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곡물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지역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민감한 주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지를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John Tetzeli 로마의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를 모으고 있을 때 마틴 루터는 성경 읽기와 그것이 기반을 둔 전통 읽기에 대담하게 도전했습니다. , 당신은 당신의 친척 중 한 명을 연옥에서 구출할 것입니다. 루터는 그럴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악한 모금 활동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확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아마도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교회의 일을 지원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10%라는 작은 희생으로 속아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0%가 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는 곳은 왕국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텔레비전 사역과 그와 같은 것들에 있어서, 나는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사역을 신뢰하거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비디오를 통해 이 연사들에게 모든 것을 보내는 것보다 지역 교회를 더 신뢰합니다.

아니요. 지역 교회에는 우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교회 역시 기금을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나요? 글썄, 그것은 사역의 일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봉사자들을 보조하는 일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예루살렘에서 잔치를 열어 레위 사람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자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파티를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십일조에 관해 말하는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일조는 구약의 청지기 직분의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성경적인 청지기 직분은 십일조, 양 떼의 첫 새끼, 기타 제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 그림을 갖고 최소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청지기직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사역의 일을 돌보는 것, 왕국의 일을 돌보는 것, 주변의 필요를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도록 상태 기호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향품 곧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분의 일을 드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왜 그는 이러한 향신료를 지정합니까? 십일조는 농산물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로 다른 구절을 조화시켜 세 개의 십일조를 내었지만 그것에 대해 매우 세심했습니다. 따라서 2년 동안 20%, 세 번째 해 동안 30%를 내어 예루살렘에서 파티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평균 금액은 약 23명이었고, 연간 수입의 3%는 십일조를 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도시에 있었고 십일조는 주로 시골 농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자체로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 번 십일조를 바쳤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구입한 음식에 대해 다시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향료 중 10분의 1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들이 실제로 식료품인지, 따라서 십일조를 드려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나중에 랍비들은 밀과 커민의 십일조는 바치되 박하의 십일조는 바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70년 이전에 지배적이었던 1세기 샴마이 사람들은 심지어 쿠민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글쎄, 그것도 십일조를 바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매우 꼼꼼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향품 곧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분의 일을 드리되

이것은 과장된 바리새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 심지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까지도 십일조를 바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십일조를 내십니다. 그는 그것의 십일조를 냅니다.

그런데 이 매우 꼼꼼한 바리새인은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훌륭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은 버렸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율법의 어떤 문제도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가장 작은 계명인 519계명을 어기되 율법의 핵심을 구하였느니라 그리고 법의 핵심을 찾고 그것을 해석학적 중심지로 활용한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일종의 법률 요약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네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정의와 자비와 신실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와 랍비들은 토라의 어떤 것도 가볍지 않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글썄, 나는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떤 것들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스스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함께 법을 요약합니다. 눈먼 바보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그는 23:17과 19에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들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율법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로운 여호와로라 여호와와 아버지의 죄악을 갚되 자식에게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의 헤세드, 그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의 언약의 사랑이 천 대까지 이르느니라 .

율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아, 내가 이 율법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하신 것과 같으니라. 우리는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 자비를 구할 때 자비를 보이시는 예수님, 정의를 위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도 율법의 일부 조항이 다른 조항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겁다고 불렀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계명과 더 가볍고 더 무거운 계명과 구별했지만, 항상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예를 들어, 랍비는 기도용 솔의 흰 실을 무시한 것에 대한 형벌이 기도용 솔의 푸른 실을 무시한 것에 대한 형벌보다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이 염두에 두셨던 종류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확실히 그가 중심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에 대해 말하는 종류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유머를 사용하십니다. 그는 청중의 관심을 끄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머러스한 노골적인 모욕을 사용합니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우리는 이것이 매우 생생한 진술이라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너희는 각다귀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느니라.

영어에서 우리는 실제로 하루살이를 긴장시키는 누군가에 대한 표현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살이를 걸러내야 했지만 킹제임스 성경 원본에 인쇄상 오류, 즉 조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살이를 걸러낸다는



대신에 하루살이를 걸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때때로 영어로 표현되는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그들이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우리에게 십일조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더 큰 원칙에 비하면 작은 것이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가난하고 그것만으로 먹고 살 수 있다면 아마도 그들은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스스로 변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원이 있는 우리는 왕국을 위해 그 자원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다귀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아람어에는 재치 있는 말장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타와 각다귀는 비슷하게 들립니다. 감라(gamla) 대 칼마(calma)입니다.

아시다시피, 선지자들은 심판을 선언할 때 종종 말장난을 사용했습니다. 미가서 1장에는 일련의 말장난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아몬드나무의 줄기를 봅니다. 글썄요, 그것은 또한 판단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모스 8장, 무엇을 보십니까? 아모스야, 나는 여름 과일 바구니를 본다.

글썄, 여름 과일, 같은 단어가 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글썄, 여기에는 말장난이 있을 수 있지만 말장난 너머에는 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정한 종류의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음료수에 벌레가 죽거나, 음료수에 도마뱀이 죽으면, 그 음료수를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썄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도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많은 문화권에서는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호스트가 나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 한 번은 그것을 해야 했고, 그의 문화에서는

그가 준 것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매우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액체를 부었을 때 유리잔에 죽은 파리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보통 그들은 음료수에 뭔가가 죽으면 아무것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숫자를 셀 수 있으려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커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글썄요, 파리는 포함되지만 렌즈콩보다 작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음료수에서 각다귀가 죽는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과장되고 매우 꼼꼼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말하기를, 아, 각다귀라 할지라도 나는 각다귀를 걸러내고 내 마실 것 속에서 죽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내 마실 것이 여전히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바리새인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인 낙타를 삼켜버립니다.

레위기 11장의 낙타는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논란이 되는 각다귀는 걸러내는데, 낙타는 통째로 삼킨다. 그들은 작은 것에만 집착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은 큰 그림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부정함에 대해 말씀하시는 동안, 바리새인들이 정결 의식의 대가들이었기 때문에 가서 그것에 대해 더 말씀하십니다. 십일조와 의식적 순결은 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두 가지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위선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컵과 접시의 외부를 청소합니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컵 내부를 깨끗이 닦아주세요. 자, 여기서 예수께서는 이 시기에 삼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사이에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의 잔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컵에 관해서, 삼매 사람들은 겉의 안쪽을 먼저 깨끗이 닦는지 여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Hillelites는 내부를 먼저 청소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응,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컵의 안쪽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컵입니다.

마음 속을 깨끗이 청소하세요. 삶의 외부를 청소하기 전에 삶의 내부를 청소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정결 의식의 대가들인데도 예수께서는 그들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음, 가장 나쁜 종류의 불결함은 시체 불결함이었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서도 도전하실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위선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입니다.

대부분의 부정함과는 달리,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내내 부정하게 됩니다. 민수기 19장. 사실, 바리새파 전통에서 이것은 사람의 그림자가 시체에 닿은 만큼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시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건너편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가 시체에 닿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의식적인 의무도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부자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순례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봄에 무덤에 회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만질 위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위해 당신은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튜는 부패를 은폐하기 위한 미화제로서 백색 도료에 다른 방식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에스겔 13장은 이 벽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상태가 정말 좋지 않네요. 부패했습니다. 하지만 온통 하얗게 칠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매우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이며, 당신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식적 불결함에 감염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너희는 부정하다. 이제 예수께서는 그에게 더욱 중요한 점을 지적하십니다. 아, 죽은 사람의 뼈.

우리가 무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 위선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무덤을 꾸미느니라. 그리고 당신은 '만약 우리가 조상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그들을 돕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이 조상들의 후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우리가 선지자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와 동일시했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이라 고대에 사람들은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어린이임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유전적 자녀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같아서 누군가의 자녀와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 당신이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어서 조상들의 잔을 채워라.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를 죽임으로써 그들의 행위를 절정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위해 예비된 심판을 요청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음, 가나로. 고대인들은 흔히 독사가 어미 몸 속에서 부화하여 어미 자궁을 갉아먹는다고

믿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3장과 7절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의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기본적으로 부모 살인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조상을 죽인 자들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니 너희 조상의 잔을 채워라. 이 바리새인들은 덕이 있기는커녕 부모 살인자들이지 아브라함의 선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너희 조상인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하였느니라. 이제 당신은 조상의 잔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를 죽여서 꼭대기까지 채워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의 시간에서 축적된 모든 판단은 이제 맨 위까지 채워질 것입니다. 넘칠 것입니다. 잔은 마침내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베레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심판이 이 세대에게 임하리라 왜 그 세대에? 그 세대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선지자,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이 절정에 달할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아벨부터 스가랴까지 모든 의로운 피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살인자를 향해 땅바닥에서 부르짖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분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피가 땅에서 흘러나오므로 여전히 말씀하신다고 읽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피는 또한 심판을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이 행위는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 순교자, 또는 적어도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자주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 성경

전체를 채울 수 있는 두루마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이 일반적으로 배열된 방식인 마지막 것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에서 스가랴가 성전에서 순교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베레갸의 아들 스가랴가 두 스가랴를 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 교사들은 때때로 당신이 다른 것을 암시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섞곤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미 어느 정도 이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말하자면, 이 사람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된 스가랴입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그는 복수를 외칩니다.

그를 다른 스가랴와 동일시하는 유대 전통에서는, 그러나 유대 전통에서는 스가랴가 살해된 곳에서 피의 샘이 뿜어져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분출되었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의 대장 느바자라단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성전에 있는 피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랍비들이 그 숫자가 24,000명 정도라고 말했다고 믿습니다. 랍비들은 과장법의 달인이었지만 성전에서 많은 사제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여 사가랴의 피를 용서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분수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한 스가랴의 피가 복수를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매우 생생한 방식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 순교자부터 마지막 순교자까지 흘린 의로운 피가 모두 이 세대에게 요구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모든 행위의 정점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의 다른 모든 곳에서 그것은 당시 살고 있는 세대를 의미했습니다. 27장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70년에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특별한 사랑, 그분의 백성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담화의 나머지 부분을 맥락에 맞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착취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마음 대신에 자신들의 생각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였는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모으고 싶었는지. 여러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날개 아래 모으시거나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쉘키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이야기하며, 개종자들이나 개종자들이 쉘키나의 날개 아래로 데려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신성하다고 주장하시며,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백성을 위해 갖고 계셨던 동일한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에스겔은 악인의 죽음을 원하지 않고 그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의 사랑에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글썄, 그들은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를 환영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네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더 일찍 나온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나타나며, 나는 13장을 믿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입성 이전에 나타나며, 나는 19장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승리의 입성 뒤에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알아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역사상 모든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만, 마지막 세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지만, 또한 왕국의 좋은 소식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자신과 함께 시작하신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결코 잊으시거나 잃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18편 역시 이 인용문은 유월절 동안 노래하는 할랄에서 따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현자이신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서도 그분의 예언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피가 다 이 세대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하셨느니라 글쎄, 그가 말한 집은 어떤 종류의 집이었나요? 문맥에 따라 그가 어느 집에 대해 언제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37절에서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시고 38절에서 그 집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다음 구절, 24절 1절과 2절에서 성전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나아와 건물들을 가리키며 이르되 보라 이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제로 그것은 로마 세계 전체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로마 제국의 반유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보다 더 웅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모든 돌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사원은 전 세계적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의 어떤 사원보다 더 크고 부유했습니다.

그곳은 가장 거룩한 곳이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유대인들에게는 Aristeas의 편지에서 성전이 무적의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디아스포라에서 그리스어로 쓰여진 또 다른 유대인 작품인 마카베오 4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성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키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성전 산 자체는 요새처럼 해석될 수 있으며 예루살렘 내부에 성벽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문법적으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글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아마도 성전이 파괴된 후에 글을 썼을 것이므로 그것이 명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마티는 표현이 명확해지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때때로 사건의 종류에 따라 사건들을 섞곤 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처음 두 장에는 침략군처럼 보이는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3장, 분명히 마지막 때에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 재앙은 요엘이 주님의 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프리즘을 제공하는 더 가까운 심판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에서 유사한 언어가 사용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최후의 심판 날을 예표했습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글썄요, 예수께서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성전은 언제 파괴될 것인가? 그는 그것에 대답해야 해요.

그분은 또한 또 다른 질문, 즉 여러분의 도래와 세상 끝의 징조에 대답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파괴, 성소를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일을 2415년에 명시하실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산으로 도피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일들이 한 세대 안에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전은 한 세대 만에 파괴되었는가? 종소리 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대략 40년이 지났는데, 이는 성경 연대기에서 한 세대의 일반적인 길이였습니다.

종말의 징조. 첫째, 예수님은 비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종말을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끝은 아직은 아니나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신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성전의 파괴 등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자신이 표징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표적을 볼 때에 즉,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면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말에 대한 징조와 비징조, 그리고 실제 징조를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무너짐으로 이 일이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오시면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해나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집이 이 세대에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항상 그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미래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 다시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것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세대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성전을 더럽혀서 황폐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럽혀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 한 세대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날짜가 옳다면 정확히 40년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아마도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덜 하겠지만 예수께서 예언하신 지 약 40년 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더럽혀지거나 파괴되도록 허락하셨다는 점에서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2세기인 기원전 165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치하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 훼손되었습니다. AD 1세기에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135년 하드리아누스 치하의 로마인들은 이 성전을 더욱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논쟁을 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성전은 파괴되거나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은 확실히 정확합니다.

여러번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른 것들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단지 냄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을 뒤엎는 심판의 행위를 하셨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거짓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 증언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는 왜곡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이 성전을 헐었으니 내가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몸의 성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성전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옛 것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것이 변형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Mark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성전이 파괴되기 전의 일이고 마가보다 더 이른 자료일 것입니다. 당신의 집이 황폐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마태와 누가가 공유한 자료 중 일부일 것입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종종 Q라고 부르는 것에서 저것.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통찰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Joshua ben Hananiah, Josephus's War, 제6권, 300항 이하.

아나니아의 아들 여호수아 벤 하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전은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은 화 있을진저 그는 그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도전받기를 싫어하고 심판의 예언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았던 성전 당국자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로마 총독에게 넘겨졌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구타를 당했다고 요세푸스는 말합니다.

레위의 언약, 15. 제사장의 부정으로 인해 성전이 파괴될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유언장 6장은 이 정도까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기독교 이전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전의 일부만이 불에 탈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전의 일부가 불에 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일부 시빌라 신탁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쿰란 성전 두루마리인 First Enoch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인 Amidah에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광범위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해 두루마리인 하박국 폐세르에서 깃딤은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부를 빼앗을 것입니다. 그것은 70세 이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설립에 대한 심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웅벽에는 기술적으로 사찰에서 나온 돌이 아닌 돌이 몇 개 남아 있었지만, 돌이 몇 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후에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불에 의한 멸망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을 나중에 꾸며낸다면 아마도 이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디테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여기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랍비들은 성전이 파괴된 것을 심판으로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아차린 랍비들보다 그보다 더 시간을 잘 지켰을 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멸망으로 이끄는 더러워진 것을 보면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벨과 사가랴의 피처럼 성전의 사다리도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66년에 요세푸스는 유대인 애국자들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학살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것을 황폐를 가져오는 가증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요세푸스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것이 황폐를 가져온 가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증한 일이  
있을 지 3년 반이 지나서 성전은 사실상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동안 도망치라는 예수의 경고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수께서 심판에 관해 계속 말씀하신 내용, 즉 당시의 종교  
제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림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6회, 마태복음  
23-24장입니다.